골리앗의 1대1 도발의 함정

(사무엘상 17:1~11)

1.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 치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4.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골리앗의 1대1 도발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골리앗의 1대1 도발의 함정'

어제 토요일 아침에 아내와 아들아이와 함께 모처럼 맥도널드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도널드에 아침식사를 하러 가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의자를 내리거나 청소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해보이고 약간의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청소만 합니다. 식사를 끝내

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이번에는 주차장을 청소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저분이 청소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아이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저도 저 사람같이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삼형제를 앉혀놓고 매일 틈만 있으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꿈과 비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꿈과 비전의 사람의 될 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알게 모르게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커왔고 이 기질로부터 벗어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청소만 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소박한 삶을 소원한다는 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혼자서 잠시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말로는 동조했지만 정말로 저렇게까지 소박한 삶을 살까 내심 걱정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한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향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것보다 실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일등 되겠다고 경쟁하는 사회, 풍요와 다산을 지향하는 사회,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소박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게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여자 친구와 고속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우연히 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친구가 작지만 외제차를 타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젊은이가 결혼하여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소유의 소형차도 생겼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 벤츠에 아이를 태워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닌 일이지만 또 다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일등을 향해 달리는 경쟁사회에서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꿈꾸는 것은 더 힘든 일일 수 있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기기 전까지는 소박한 삶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아이가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 말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경쟁사회가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갖는 꿈이라면 그것은 오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꿈을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생활화를 체질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원대한 꿈을 갖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이 소박한 삶이 정말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이김은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경쟁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기는 방법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아들아이가 가진 꿈대로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통째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며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을 도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 3m나 되는 신장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입은 청동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창의 날만해도 7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골리앗이 속해있는 블레셋과 이미 사십일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치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블레셋 군에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과 싸워보자고 반복해 외쳤던 것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이러한 장면도 흔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합니다.
8절에서 골리앗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모든 군인이 듣도록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 도발은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의 전쟁이 아닌 개개인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 왕은 자신이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참모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도 자신들과 골리앗의 1:1 싸움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었고, 60kg짜리 청동갑옷을 걸치고 손에는 쇠창살의 무게만 7kg이나 나가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과 1:1로 싸워서 목을 베이고 밟히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면전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군은 이미 골리앗과의 1:1 싸움에서 마음으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1로 싸우자는 골리앗의 도발적 외침의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의 도발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구의 75억 인구의 마음을 후려치기 위해서 1:1 대결의 구도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도발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되는 대결은 골리앗처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1:1 대결의 상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부부관계조차도 1:1 대화를 통해 괴로움과 불행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과의 1:1 싸움을 상상하며 이미 패배와 죽임을 당하고 있

던 중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살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도발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이 보였던 골리앗의 도발에 대한 반응이 무척 특별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욕할 때에는 할례 받지 않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돌며 골리앗을 욕했고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의 주눅 들지 않은 자세가 특별히 사울 왕에게 보고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천부장 백부장들마저 주눅들어있는데 15살 목동 다윗만은 당당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은 다윗이 철이 없고 세상을 잘 모른다며 야단을 칩니다. 다윗이 그만큼 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군복무 나이는 20세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의 형제 8명 중에 3명이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는 넷째 형은 최대 19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막내 다윗에 이르기까지 연년생으로 이어졌다고 쳤을 때에 막내였던 다윗은 최대 15살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바가 없으니 14살이나 13살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첫째 형의 말대로 철이 없고 세상물정을 몰라서 주눅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34~35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부른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가짐은 이미 목동시절에 다윗의 마음과 입에 붙어있었습니다. 다윗은 34~35절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비유삼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치던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양은 사자나 곰이 물고 갈 때에도 1:1의 구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을 상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양과 목자는 언제나 2:1의 구도로 사자와 곰을 마주합니다. 사자나 곰은 양을 혼자 있는 것으로 여겨 물고가려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나 목자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와도 같음을 읽어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묶인 목자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묶여있다는 것을 삶의 첫 번째 현실로써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사자와 곰에 대해 2:1구도를 이루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대할 때에 2:1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이 구도는 사자나 곰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도 이러한 2:1의 구도를 옮겨와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각자가 골리앗과 1:1 상황이 됨으로써 패배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1:1이 아닌 2:1의 구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골리앗에게 칼로 목 베임을 당하고 동안에도 다윗만은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하듯이 마음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샘이 나고 시기가 날 정도로 어린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2:1 공식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나누어질 수 없는 둘의 연합으로 만들고 세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은 비단 대적해야 될 대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동네 친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 된 상태에서 2:1로 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과제나 사건을 만나든 싸워야 될 적을 만나든 이 구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이 도발하면서 원하는 대로 1:1의 구도가 아니라,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자면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2:1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주눅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미 사자나 곰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힘을 다해서 대적해야 될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둘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대가 사소하든 대단하든 2:1로 마주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비추어볼 수 있었다면 거울에는 자신과 하나님이 연합한 모습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반면 사울 왕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서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1:1의 구도가 잘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1:1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대상의 자리에서 젖혀버린 상태입니다. 이 1:1의 구도 안에 빠지고 나면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처한 상황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해결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1:1의 구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제2 제3의 존재로 밀려나시게 됩니다.

1:1의 구도에서 상대가 얼마나 만만하거나 까다로운지는 상관없습니다. 설령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대상과 마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은 애초에 1:1 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도발에 넘어갈 때에 1:1의 구도는 만들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상들과 1:1 구도를 만든 뒤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과 묶인 2:1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의 신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각자가 최우선의 현실로 하나님을 갖기만을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해결사가 되시고자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바로 당신 자신을 모든 문제보다 앞선 현실로 내어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절대자나 신으로써 대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현실이 되시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신 이유는 전능하신자로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조 된 세상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첫 번째 현실로 삼아야 될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과 묶인 소년 다윗을 만난 골리앗은 소위 제삿날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합이 없는 종교적인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도 지지합니다. 다만 마귀가 요구하는 단 하나는 1:1의 구도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재정문제가 있다면 재정문제와 1:1의 구도 속에 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상대로 여기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현실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여러 일들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골리앗이 1:1로 싸우자고 제안한 것과 같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소리치고 속삭이면서 도발하는 것입니다.

건강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과 1:1 대결구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의 현실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굴레에 갇힌 만들어진 신일뿐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울타리에 가두고 교리 속에 갇힌 절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1:1 구도에서 찾는 하나님은 절대 현실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다윗의 승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장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큰 비중으로 골리앗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골리앗보다 더 심각한 실패를 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만든 1:1의 대결구도에 빠져들어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목동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를 이들은 패배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다윗은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곧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듯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건지시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1:1의 구도에 빠져서 마음에서는 이미 목 베임을 당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앞선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치른 전쟁을 이들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이기 전에 치러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시고 연합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 또한 바로 이 전쟁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면 모든 상황이 2:1 구도가 됩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과 묶인 나로써 2:1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적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이 2:1의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개벽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이러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의 도발에 넘어가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주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육체로 마주하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물들은 통틀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이겨서 내 마음에서 죽이고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연습 경기에 불과합니다. 본 경기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본 경기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승리가 약속 된 연습 게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을 앞두고 있든 골리앗을 앞두고 있든 마찬가지로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상 자체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2:1의 구도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상상을 활용해야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며 상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상은 공상 허상 몽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영의 세계인 천국과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상이 공상이나 허상이나 몽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시에 근거된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십억만 있으면 아니 하다못해 삼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해본 미래가 너무나 좋기에 현실에서도 그러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기 암환자라면 “암만 나으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곳에도 다 가겠다”라며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상상의 힘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만 한다는 욕구가 상상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돈 삼억만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에는 마음을 돈으로 채워서 기쁨을 얻어 보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암환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상상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건강으로 채워서 기쁨을 얻어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상상하고 병든 자가 건강을 상상하듯이 무릇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 되는 미래를 상상하며, 자녀들이 서울대에 가는 것을 상상하고, 취직하고 승진해서 출세하는 것을 상상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미래에 존재하리라 믿어지는 기쁨을 미리 맛보며 전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빌지언정 하나님 자신의 좋으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돈 십억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갖는 것만큼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상 속에서 바라는 것들은 만의 하나도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상상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란 결국 5,5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으심은 100% 다 가질 수 있는 실제입니다. 다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써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기에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좋으심을 체감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십자가 복음을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변화산 사건이 평가절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예표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진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뒤에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구체적 변화가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아래에서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의 빛 아래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

니다. 빛을 잃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바로 후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을 주목해왔습니다. 애초에 죄란 이 세상을 1:1로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는 체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1:1의 구도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로써 찾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죄사함이란 바로 이러한 1:1 구도를 깸으로써 변화산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삼억이든 십억이든 벌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얻는 미래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1의 구도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2:1의 구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승천의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이유는 세상의 좋은 가치들을 모두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향해 가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담아놓은 주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음의 주머니와 같은 세상을 잊게 하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란 계시에 근거 된 상상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천국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돈 벌면 좋겠다는 상상, 건강하면 좋겠다는 상상, 자녀들이 일류대학 들어가면 좋겠다는 상상, 취직하고 승진하면 좋겠다는 상상은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가지면 좋겠다는 상상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는 것이고 그 좋음을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해 말씀에 근거한 상상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한 믿음의 증거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베드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 상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삼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게 된다면 이런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상상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세상가치에 대한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말씀에 근거 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통해

세상을 제거해버리고,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1:1의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속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 2:1의 구도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본 경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 된 상상을 통하여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내 마음을 도발해서 세상과 1: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와 일, 나와 직장상사, 나와 공부, 나와 살림, 나와 돈 문제 등을 1:1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해결로 인해 주어질 좋음보다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에 취할 때에 하나님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의 도발에 휘말린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속에서 이미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계시에 근거 된 상상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우리를 1:1의 구도로 도발하려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2:1의 구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말씀에 근거 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상상을 통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2:1의 구도로만 살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